

✱ 한옥정책토론회

한옥 보존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2010년 3월 25일(목)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국회의원 김진애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 한옥정책토론회

한옥 보존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2010년 3월 25일(목)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국회의원 김 진 애
(민주당,국토해양위원회)

❀ 토론회 진행 순서 ❀

15:00 ~ 15:10

○ 개회 및 환영사 : 김 진 애(국회의원)

15:10 ~ 15:20

○ 축사 : 최 재 천(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15:20 ~ 17:00

○ 발제 및 토론

사회 : 유 태 용((재)서해문화재연구원 원장)

발제 : 김 도 경(강원대 건축학부 교수)

“한옥 보존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토론 :

- 김 병 수(전주한옥생활체험관 관장)
- 김 봉 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피터 바돌로뮤(동소문동 한옥 거주민)
- 황 평 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특별 토론 :

- 데이비드 킬번(북촌 한옥마을 거주민)

17:00

○ 폐회

❁ 목 차 ❁

*발제문

한옥 보존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	5쪽

*첨부자료

한옥의 보존 및 건축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21쪽

Heritage, Human Rights, and Hanoks	
-----	33쪽

▣ 발제문

한옥 보존과 발전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김 도 경

공학박사,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한옥과 문화 고문

1. 들어가며

한옥은 오랜 동안 이 땅에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차별성을 지닌 한국의 대표적 주거문화이다. 그래서 한옥에는 이 땅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한국인의 집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시작된 서양문화의 **이입으로** 한옥은 그 진화를 멈추었다. 더욱이 선진국화의 명목 아래 진행되었던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한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수 천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왔던 한옥은 파괴되고 소멸되어 갔으며, 자칫 명맥조차 잇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한옥은 문화재적 가치로서만 보존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한옥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한옥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건강한 삶, 웰빙(well-being), 친환경과 생태, 지속가능성,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추세와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저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 추구하고 자긍심, 건강하고 친환경적 건축과 주거문화에 대한 관심 속에서 한옥을 재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한 새로운 건축문화 창조의 가능성에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시점에서 우리는 한옥의 보존과 함께 발전에 대한 모색을 통하여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하고 주거문화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에 대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류(韓流)를 바탕으로 국가에서는 한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급기야 ‘한옥의 보존 및 건축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옥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한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낡아서 보급되는 무늬만 한옥인 집들이 무분별적으로 공급되는 현실은 자칫 한옥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사회적 현상(boom)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옥이 지닌 특성과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한옥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은 한옥이 지닌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자리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한옥의 보존과 발전 정책에 대해 살

펴보고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옥의 정의와 가치

오늘날 ‘한옥’은 “옛 건축, 특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선시대 말기의 건축”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한옥을 정의하면 여러 가지 의미상의 혼란이 발생함은 물론 21세기의 한옥을 창조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한옥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옥(韓屋)’이라는 용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옥이라는 말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서양의 문화가 이입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집을 한옥이라는 말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개항과 더불어 새로운 건축이 이입되면서 그 집들을 ‘양옥(洋屋)’이라 부르게 되면서 이에 상대되는 말로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건축을 일컫기 위해 한옥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땅에서 건축은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그 형태를 알 수 있는 건축은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 이후의 것이기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 전기, 그리고 훨씬 더 이전으로 올라가 삼국시대의 건축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옛 건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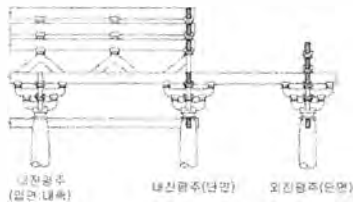


그림1. 쌍영총에 묘사된 건축도를 통한 고구려 건축의 추정 구조도



그림2. 남북국시대 신라 건축의 추정 복원 예 - 안압지 택



그림3.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의 추정 복원 예 - 함양 정여창고택



그림4. 일제강점기 외래 수법을 채용한 주택 - 청양 윤갑선씨택



그림5. 일제강점기 집장사들에 의해 공급된 도시형 한옥



그림6. 일제강점기 서양식과 전통기법을 혼합한 주택 - 박노수가

옛 건축을 한옥이라는 말로 부른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이후의 건축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것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옥도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과거 건축의 사례와 기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한옥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가. 21세기 한옥 창조를 위한 포괄적 의미의 한옥

이러한 몇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옥은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순화된 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대우주(大宇宙)로 인식되는 자연, 소우주(小宇宙)로 인식되는 소아(小我)인 나, 그리고 그 사이의 중우주(中宇宙)로 인식되는 집(건축)을 별개가 아닌 하나로 인식하였다. 집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자연 및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이었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동안 이 땅에 지어졌던 한옥은 이 땅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온 건축이라는 점에서 이 땅에 순화된 집이었다. 자연환경은 쉽게 변화하지 반면에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모든 사람이 만든 모든 인문적 영역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자연환경보다 인문환경이 건축을 변화시키는 주된 원동력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순화된 집”을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한옥이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특성을 지닌 한옥은 건강한 삶, 웰빙(well-being), 친환경적 생태건축, 지속가능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 한국인의 건축에 대한 요구에 잘 부합한다. 그러나 인문적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거쳐 과거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는 과거의 한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듯이 오늘날의 한옥도 과거의 한옥과는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나. 전통적 의미의 한옥과 가치

한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는 변화하지 않는 요소도 있으며, 오랜 시간 변화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집에 대한 이상(理想)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들도 있다. 한옥을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전통 한옥에서 잘 변화하지 않으면서 집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는 요소가 반영된 집”**이라 할 수 있다. 잘 변화하지 않거나 이상을 담고 있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한옥에 사용되는 재료는 나무와 흙, 돌 등과 같은 자연재료이다. 자연재료의 사용은 산업혁명 이전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전통적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다. 나무와 흙, 돌은 1차적인 자연재료라 할 수 있는데, 또한 한옥에는 1차적 자연재료를 혼합 또는 가공한 한지, 기와, 전돌(흙벽돌), 생석회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재료는 현대의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나 접착제 등과 같이 자연재료의 물성을 화학적으로 변형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만 변형시킨 것으로 2차적 자연재료라 부를 수 있다.



그림7. 자연재료를 사용한 한옥

둘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옥은 시종일관 목조가구식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귀틀집 구조와 같이 전혀 다른 구조방식이 사용되기는 하였어도 목조가구식 구조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한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방식이었다. 또한 목조가구식 구조는 세부적인 구조방식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기둥과 보, 도리, 대공, 동자기둥을 기본적인 구조부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목조가구식 구조와는 차별성을 지니는 한옥의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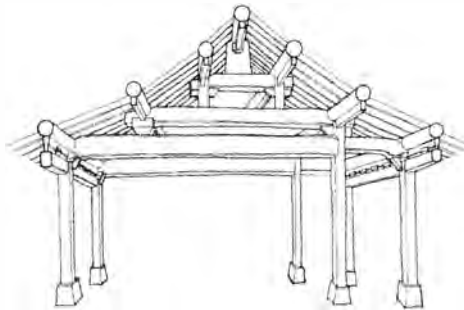


그림8. 한옥의 목조가구식 구조



그림9. 목조가구식 구조의 조립 과정

셋째, 기법적 측면에서 한옥의 목부재는 짜맞추는 결구법을 기본으로 하며, 기둥은 그랭이질을 하여 초석 위에 올려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부재의 반복과 조립식 공법을 특성으로 한다.



그림10. 한옥의 기법적 특성

넷째, 한옥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환경조절체계((natural environment control system)¹⁾를 지니고 있다. 지형에 따른 입지와 배치, 깊은 처마, 백토 깔아 말끔히 정리한 마당, 뒷산으로 이

어지는 후원, 대청과 대청의 평면 구성, 흙벽과 지붕의 구조, 온돌과 마루,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창호, 창호지의 사용 등은 개별적, 혹은 서로 관계를 지니며 작용하여 외기(外氣)의 변화에 따라 실내의 환경을 조절하는 건축적 요소이다.

- 지형에 따른 입지(立地)와 배치(配置)
- 여름철 국부적인 대류현상을 활용한 바람과 냉방효과
- 다양하고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창호를 통한 실내 환경의 조절
- 계절에 따라 햇빛의 실내 유입량을 조절하는 처마
- 실내의 조도를 균등하면서 밝게 유지시키는 자연채광 방식
- 습도 조절 능력과 높은 단열, 축열 성^능을 지닌 흙의 사용
- 한지의 통풍성과 온돌 구조를 이용한 실내 공기의 조절과 정



그림11. 지형에 따른 배치



그림12. 대청을 중심으로 한 국부적인 대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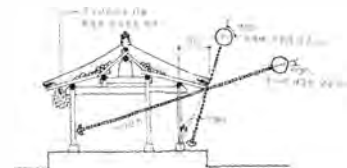


그림13. 처마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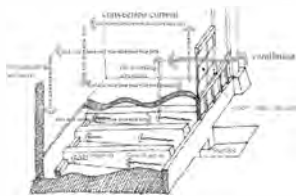


그림14. 온돌과 창호지를 통한 실내 공기의 조절과 정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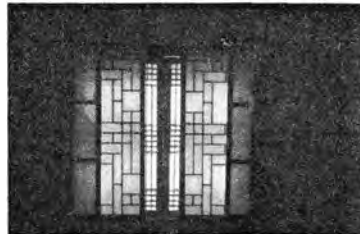


그림15.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창호



그림16. 창호지의 사용과 실내 조도

다섯째, 한옥에는 온돌과 마루가 공존하고 있다. 온돌과 마루는 서로 이질적인 기원과 기능을 지닌 바닥 구조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하나의 평면 속에 동일한 높이로 통합되어 한옥의 가장 큰 특성을 형성하였다. 또한 온돌과 마루의 공존을 통하여 좌식(坐式)이라는 생활방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좌식으로 인해 한옥은 융통성을 지닌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공간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1) Do-Kyoung Kim, The Natural environment control system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Comparison with Korean contemporary architecture, Building and Environment 41, 2006



다. 현대적 의미의 한옥과 그 유형

한옥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오늘날 전통 한옥을 바탕으로 현대 한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 속에 나타나는 한옥을 현대적 한옥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재 한옥

과거에 지어진 한옥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한옥은 보존의 대상이 되며 한옥의 원천적 기술이나 기법, 형태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대상이 된다.



그림18. 문화재 한옥

● 전통적 한옥

현대에 지었으며 전통적 한옥의 구법과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한옥이다. 사회와 생활상의 변화로 인해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지어진 한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계승적 한옥

한옥의 기본적인 구법과 형태를 지니면서 생활상의 필요나 취향 등에 따라 그 일부 요소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한옥이다. 변형 또는 추가된 요소보다 한옥의 구법과 형태를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계승적 한옥이라 부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구법과 형태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옥을 계승하였음을 누구나 손쉽게 인지할 수 있다.

변형 또는 추가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20세기 초반에는 서양 또는 일본의 영향으로 한옥을 기본으로 하면서 2층의 도입, 다다미의 첨가, 거실의 도입 등과 같이 외래적 요소를 가미한 경향이 많았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양상

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생활의 편리를 위한 부엌, 욕실, 화장실, 내부 설비 등을 추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19. 일제강점기의 계승적 한옥



그림 20. 현대의 계승적 한옥

● 선택적 한옥

전통 한옥의 일부 요소를 선택적으로 재현 또는 적용하는 경우를 선택적 한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선택적 한옥은 선택한 한옥의 요소가 재해석이나 추상화를 거치지 않아 그 요소가 한옥에서 유래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선택한 요소의 수가 많을수록 계승적 한옥에 가까워진다.

선택적 한옥은 한옥의 요소를 재현하거나 적용하고 있어서 선택적으로 한옥을 계승하면서 현대화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그 선택과 적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한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선택적 한옥은 선택 가능한 요소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법(構法) : 목조가구식 구조, 귀틀집 구조, 토담집 구조 등과 같은 기본 구조를 채용한 경우
- 재료나 기법 : 전통 한옥에 사용된 자연재료를 전통적 기법이나 형태로 재현한 경우 - 흙벽, 돌담, 한식 기와, 한지(창호지, 벽지), 면회법, 전돌이나 돌쌓기 등
- 형태 : 전통 한옥의 외관이나 내부 형태, 또는 무늬 등과 같은 형태를 채용한 경우 - 구조, 창호, 무늬, 단청 등

● 현대적 한옥

전통 한옥이 지닌 **특징으로서의** 요소를 재해석 하거나 추상화 하여 현대적 기법으로 적용 또는 응용한 경우이다. 재해석 또는 추상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한옥임을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옥을 계승하면서 현대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한옥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옥을 현대화 또는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현대적 **한옥은**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순화된 집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21세기 한옥을 창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전통 한옥과의 관계, 또는 진정 순화된 집인가 하는 평가에 있어서 주관(主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적 한옥에 대한 시도는 현대 건축가를 비롯하여 학자, 시공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적 한옥에서 시도하고 있는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궁극적으로 21세기 한옥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한 모든 유형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 구조의 재해석
- 형태의 재해석
- 공간의 재해석
- 자연친화적 요소의 재해석

3. 한옥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가. 정책의 현황

한옥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과 우리에게 순화된 21세기의 한옥을 창조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논의의 주제는 이상(理想)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한옥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한옥의 보존과 건축 진흥’에 관한 것이므로 대상을 앞서 규정한 현대적 의미의 한옥 중에서 문화재 한옥과 전통적 한옥, 계승적 한옥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재 한옥은 보존의 대상이 되며, 전통적 한옥과 계승적 한옥은 건축 진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선택적 한옥과 현대적 한옥은 한옥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평가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논의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한류(韓流)를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증대는 건강과 웰빙, 친환경적 건축을 추구하는 국내외적 경향과 맞물려 급기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옥 보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사업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한(韓)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옥 브랜드 사업
- 한옥 현대화 및 산업화를 위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과 지원
- 한옥보존지구의 지정과 보존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 서울의 가회동과 삼청동, 전주시 한옥보존지구, 서울의 서촌 관련 사업 등
- 한옥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전라남도의 한옥 지원 사업
- 한옥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 세종시 내 한옥 시범 마을 조성 사업
- 한옥 보존과 진흥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 : 한옥의 보존 및 건축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이러한 사업을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 ① 한옥 밀집 지역에 대한 보존 지구의 지정과 지원 사업

33cm
18g 19cm
10501 21 22

촌(西村) 지역의 한옥보존지구 지정은 이 지역의 한옥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및 시민단체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과 심각한 대립, 갈등을 보이면서 또 다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지나친 상업화의 경향과 또 다른 문제의 파생

한옥보존지구의 한옥 지원 정책은 그 지역의 한옥과 경관을 보존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인적이 드물고 슬럼화 되었던 지역에 다시 사람이 모여면서 문화와 상업이 진흥되고 있다는 점 역시 한옥보존지구 지정과 지원 정책의 긍정적 효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다. 우선 지나치게 상업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처음의 순수했던 경향이 점차 사람이 모여면서 상업적인 경향으로 탈바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한옥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개발에 대한 또 다른 논리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가(地價)의 지나친 상승, 가로변에 위치한 한옥의 지나친 형태 변경을 넘어선 상업건축적 경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한 돈벌이를 위한 무분별한 공사로 인한 거주민의 피해도 부각되는 문제점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림22. 삼청동 일대의 현재 모습

다. 한옥 현대화 및 산업화를 위한 R&D 사업

한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옥 현대화 및 산업화를 위한 R&D 사업은 한옥의 진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사업의 결과 많은 좋은 성과물이 도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화와 산업화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자칫 한옥이 지닌 장점으로서의 특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주로 한옥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측면에서 보고자 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나친 단열 성능 향상으로 인한 실내 공기의 질 악화
- 지나친 **모듈화와** 자동생산으로 인한 획일화 가능성
-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능만을 강화한 신재료의 개발
- 형태의 무분별한 왜곡과 유해한 화학성분이 함유된 재료의 사용

라. 한옥 건축의 장려를 위한 시범마을 조성과 지원 사업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한옥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함께 한옥 건축에 대한 지원금 보조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옥 지원 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잘못된 선정과 돈벌이를 위한 비전문적 시공업자들의 무분별한 공사 참여로 왜곡된 한옥과 낡림집이 양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한옥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사회적 현상(boom)으로 끝날 우려를 지니고 있다.



그림23. 전라남도의 한옥 지원 사업에 의해 건축된 한옥 사례

마. 한옥 보존과 진흥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

한옥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 건축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한옥의 보존과 진흥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기준도 한옥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심지어는 한옥 건축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한옥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옥 보존 및 건축 진흥을 위한 특별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기대하는 바 역시 매우 크다.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법은 총 4장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한옥 보존과 한옥 건축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한옥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제2조(정의) 1항에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 중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라고 하여 한옥을 정의하고 있다. 법 규정에서 한옥의 정의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옥은 앞서 현대적 의미의 한옥 유형에 대해 정의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 한옥과 전통적 한옥, 그리고 계승적 한옥이 포함된다. 일견 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한옥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옥은 대상 한옥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택적 한옥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선택적 한옥은 포괄적 의미의 한옥으로 나가는 단계 중 하나로서 긍정적 의미를 지니지만 부적절한 선택과 적용은 오히려 한옥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한옥 지원 사업에 의해 건축된 한옥 사례 중 많은 수가 기본적인 구법과 형태만 한옥인 선택적 한옥에 속한다. 그런데 건축적 비례나 미적 감각, 내부공간의 구성과 자연환경조절체계 등 대부분의 측면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어 오히려 한옥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적절치 못한 선택적 한옥에 속한다. 그리고 실제

거주자는 시공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매우 팽배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한옥임에도 오히려 한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본 법의 한옥에 대한 정의는 보완이 요구되며, 그 보완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전통적 의미의 한옥과 가치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 세부적인 기준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한옥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가. 한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과 미래 수요자의 육성

오늘날 한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우리 것은 좋은 것 이야” 라는 식으로 한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한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막연한 동경과 오해는 한옥 현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한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의 예로 서울의 북촌에 대한 오해를 들 수 있다. 현재의 북촌은 실제 조선시대의 북촌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특히 현재 한옥이라 불리는 많은 집들이 남아 있는 지역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걸쳐 조선총독부의 조선왕조 말살정책과 돈벌이에 나선 집장사들에 의한 난개발에 의해 만들어진 낡은 집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집들은 전통 한옥에 대한 많은 좋지 않은 인식을 남겨준 원인 중 하나이다.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집들은 좁은 간사이와 작은 규모, 짧은 처마와 일본식으로 변형된 외관, 제대로 된 기법을 구사하지 않아 발생한 심한 외풍 등 한옥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이 지역은 한 시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한옥이라 불리는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한 시대의 집이 면적(面的)으로 밀집되어 역사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의 가치가 높다. 그러나 결코 기법이나 형태에 있어서는 양질의 한옥이라 부를 수 없다. 따라서 기법이나 형태적 측면에서 이 지역의 한옥은 결코 한옥 현대화를 위한 모본으로 삼을 수 없다. 한옥 현대화를 위해서는 한옥이 지닌 장점으로서의 정확한 특성과 함께 기법과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행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아무리 제대로 지어진 한옥이라 할지라도 한옥에는 현대인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전통 한옥의 부엌은 매우 불편하여 개조되어야 할 부분이며, 대청마루는 여름철에는 매우 유용한 부분이지만 겨울철의 활용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구조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전통 한옥은 현대화를 위한 많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또한 한옥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의 집에 대한 생각과 생활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단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통풍을 통한 실내 공기의 정화와 같은 또 다

른 부분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면이 있다. 단열과 통풍의 어느 하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兩者) 또는 여러 요소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쾌적성을 높이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 지나치게 따뜻하게 지내는 우리의 생활 습관은 한옥이 지닌 친환경적 특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고쳐야 할 생활 습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나. 한옥 특성의 정량적 연구의 강화

앞에서 한옥이 지닌 장점으로 자연환경조절체계와 구조, 의장, 공간적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정성적인 측면의 것이 대부분이고 정량적 측면의 연구는 아직 매우 미약하다.

한옥 현대화는 한옥이 지닌 장점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옥의 장점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부족하므로 한옥의 장점을 살린 한옥 현대화를 위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 따라서 한옥 현대화를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한옥의 장점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한옥의 장점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정량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화 하는 현실 속에서 한옥과 관련한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한국 건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연재료의 부족과 대체 재료의 개발

한옥은 나무와 흙, 돌 등과 같은 자연재료와 한지, 벽돌, 기와와 같이 자연재료의 물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재료의 사용을 특성으로 한다. 그런데 이들 재료의 사용에는 각각 서로 다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목재는 그 수량의 부족과 수종의 변화가 문제가 된다. 한옥은 전통적으로 육송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수량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열악해져서 수량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목재의 부족에 대한 대비와 함께 건축재료로서의 수종 변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벽과 지붕 등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흙을 사용하는 것은 시공을 위한 기능자의 확보 문제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시공성 확보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흙벽의 전통적인 시공법은 시공의 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공기(工期)가 길고 습식 공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목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흙이 지닌 자연재료로서의 물성과 장점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성과 시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24. 흙벽의 재료



그림25. 흙벽의 시공

또 다른 예로 현대적 기법으로 제작되는 벽돌과 기와는 획일화 된 규격과 색감, 형태로 인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편으로 기와는 오히려 조선시대에 와서 기능별 유형이 줄어들어 지붕을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옥 현대화를 위해서는 기능별 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규격과 색감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26. 경복궁 경회루 일곽



그림27. 운현궁 노락당 중문

라. 시공비 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의 지원 강화

한옥 현대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전통적 구법에 의한 한옥의 시공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시공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생산과 대량생산의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시공비를 낮추기 위한 연구는 주로 목조 부분에 치우쳐 있다. 목조 부분이 한옥 시공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목조 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공사에서 공종별로 차지하는 공사비의 비중에 대한 연구, 전체 공정의 체계화, 목조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공법의 연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목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생산과 대량생산의 방법 외에 정확한 역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부재 단면을 줄이고자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부재 크기의 비례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구조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그 방법을 과거의 건축에서 찾아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의 건축은 조선시대의 건축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방식을 지니고 있었으며²⁾, 부

재의 단면 크기도 조선시대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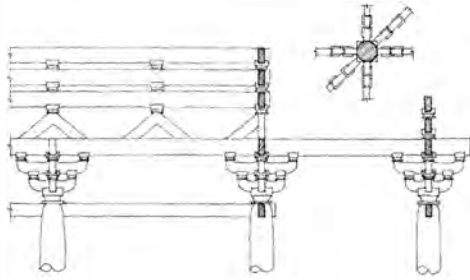


그림28. 쌍영총 건축도의 구조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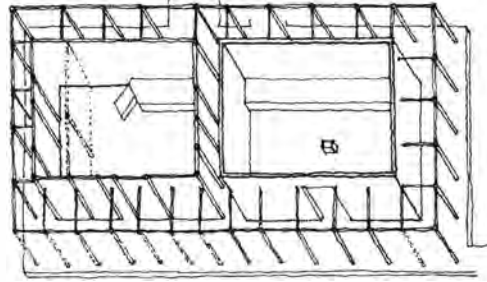


그림29. 집안 동대자 유적의 구조 추정도

마. 고밀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한옥은 다층화나 밀집화를 통한 고밀도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 한옥을 짓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역사적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비롯한 많은 다층 건축이 존재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주로 비주거용 건물에 속하는 것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주거용 건축은 대부분 단층으로 만들어졌다. 한옥의 고층화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구조 방식과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고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2~3층 정도의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구조와 난방 및 바닥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밀집화를 위한 한옥 연립주택 등의 설계와 세부 기법 개발 등 도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옥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바. 한옥 활성화와 활용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

한옥 보존과 건축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될 예정에 있음은 한옥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한옥 진흥을 위해 건축법의 건축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한옥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건축 교육의 정비

현행 대학의 건축교육에서 한옥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약한 편에 속한다. 5년제로 편성된 건축학 교육에서 한국건축과 관련된 교과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건축사라는 과목으로 한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4년제 건축공학 교육에서는 한국건축과 동양, 서양 건축을 건축사라는 한 과목에 포함시켜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옥의 설계와 시공, 연구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 2) 김도경·주남철, 쌍영총에 묘사된 목조건축의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권2호, 통권 172호, 서울;대한건축학회, 2003.2. / 김도경·주남철, 集安 東臺子遺蹟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권 9호, 통권179호, 2003.9.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목수와 석공, 미장 등 한옥의 시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옥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도**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목수가 되기 위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을 쫓아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현행 건축사 제도와는 별도로 한옥 전문 **건축사와** 시공기사 등의 법제화 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전문인 양성을 위한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